

□ 올바른 채팅문화 확립을 위해

통신공간은 욕망의 배설구 아니다

현실 감각 희석된 채팅은 사라져야

김 종 현

〈신문방송국 간사〉

얼마전 슈퍼컴퓨터와 인간 간의 체스게임의 결과를 두고 구구한 얘기들이 나왔던 것을 기억한다. 체스에 관한 한 세계 최고수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인간과 최고의 프로그래밍으로 무장한 컴퓨터 간의 싸움이 컴퓨터의 승리로 나타났을 때 느끼는 것은 컴퓨터가 아무리 인간의 손을 거친다 하더라도 현실세계에서 컴퓨터가 인간을 누를 수 있다는 역설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당혹감은 비단 하나의 게임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가장 관심을 끄는 화두로서 뉴미디어도 결국 컴퓨터의 매개에 의해 가능한 매체의 형식일뿐이다.

컴퓨터 통신은 바로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인간 간의 소통방식의 혁신이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Communication)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그 자체로 다가오고 있

다. 각종 매체를 통해 나오는 기사 혹은 광고도 결국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를 바탕에 깔고 있다.

채팅은 바로 그러한 PC통신으로 인해 변화하는 의사소통방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내통신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이라는 선로를 통해 전세계 어디에 있던 타인과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채팅을 놓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다분히 낙관적인 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물론 채팅에서 이뤄지는 대화내용의 수준이나 참여자들의 상식 밖의 욕설, 그리고 언어의 변형이나 파괴 등 사용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이 적지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채팅 형식의 온라인 대화가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 사회의 일반적인 대화방법으로까지 전망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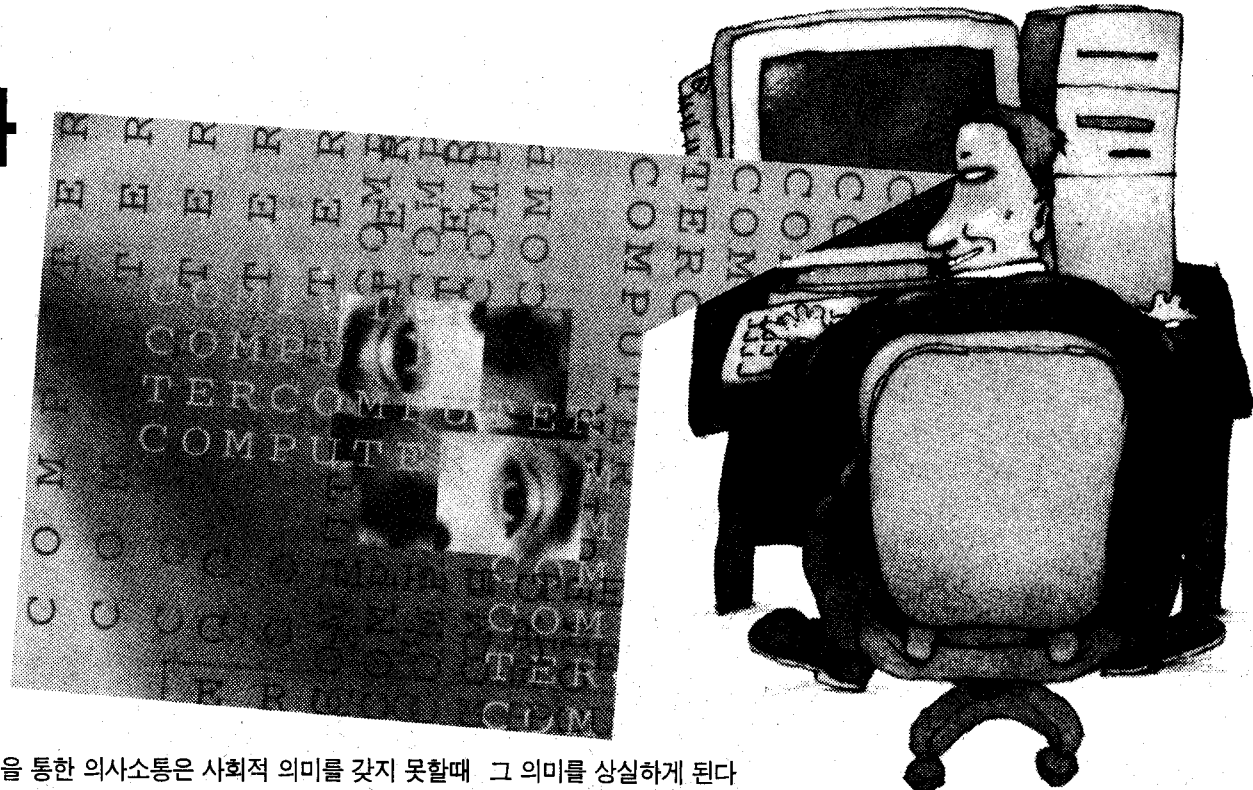
지난해 다녀간 독일인 하버마스는 PC통신 형식의 의사소통이 기술적으로 수평적인 네트워크와 의사소통의 흐름에 있어 권위적인 한계들을 극복

해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전체하면서도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있다. 즉 통신을 통한 의사소통이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받지 못할 때 오히려 현재의 공동체적인 삶의 잔재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PC통신 공간이 단순히 기계로 이뤄지는 기술적인 공간이기 이전에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공간으로 이해한다면 아나키즘적인 욕망의 배설에 앞서 현실공간의 한계를 적절히 극복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채팅이 이용되는 실례는 바로 그러한 점을 표현한다. 채팅의 기술적인 잠재력은 온라인 수업을 통한 재택수업을 가능케 하였으며, 국가간 회의도 일정한 시스템만 갖추면 직접 이동이라는 수고를 절약하면서 전자회의로 대체시키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비용절감과 시간적인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은 사회적으로 더 넓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바탕이 되고 있지만 실제 사용에서 오는 한계는 남아 있다.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온라인 수



▲채팅을 통한 의사소통은 사회적 의미를 갖지 못함때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업은 그 좋은 예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시작된 온라인 수업은 그것이 지닌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의실에서 나타난 한계가 그대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오히려 시간과 노력을 더 들이게 하는 웃지 못할 사태도 재현되기도 했다. 즉 채팅을 통한 자유토론식 수업은 몇 명의 참가자가 있더라도 한, 두명의 참가자가 대화를 독점 혹은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며, 온라인 수업외에도 따로 일정과 시간을 내어 강의실에

모여 부족한 부분을 직접 강의하는 중복도 감수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애초 온라인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던 효과 혹은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다.

비단 온라인 수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대화방의 대부분이 대화를 위한 대화, 즉 무의미한 말싸움이나 상대방에 대한 신상파악정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채팅 이용수준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다. 즉 채팅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의사소통도

현실속에서 지니고 있던 갖가지 한계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인 가능성과 현실적인 이용 사이에서 벌어지는 골은 가장 큰 문제거리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채팅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는 그것이 지니는 자유로움과 위계적인 질서의 파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단순한 대화에서 중요한 주제를 놓고 벌어지는 채팅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인 감각이 배제된 상태의 대화는 배제되어야 한다.

□ PC통신상 신조어들

채팅족, 또 다른 세종대왕

현대적 재창조 의미와 국어오염 가능성 공존



‘○○○님이 대화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안나세요. 어썬요”
“캬캬. 방가 ~”
“어대 사는 몇짱, 누구신감?”
“전 설사는 고딩 ○○○입니다.”

...
“전 20000 가봐야 쟈네요. 즐팅!”
“그래요. 파이~”

모니터를 응시하는 네티즌의 두손은 씹힘없이 키보드를 두드린다. 그리고 모니터는 현실 세계에서는 생소한

어휘를 뿜어낸다. 천차만별이다. 채팅의 문이한이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어휘의 연속이다. 이와같이 채팅의 공간과 현실 세계의 괴리성은 의사소통 어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가장 대표적인 채팅 어휘는 ‘축약형 어휘’이다. 이는 채팅의 의사전달이 오로지 키보드로 입력된 문자로만 가능하다는 데에 기원한다. 즉, 보다 빠르고 손쉽게 의사를 전하기 위해 현실의 어휘에 메스를 대었다. 예를 들자면 ‘안나세요(안녕하세요)’, ‘방가(반갑습니다)’, ‘설(서울)’, ‘고딩(고등학교생)’, ‘어썬요(어서 오세요)’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축약형 어휘는 의사전달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채팅 공간에서 넓게 쓰인다.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어휘도 채팅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어휘는 ‘축약형 어휘’ 같이 실용적인 쓰임새를 가지지는 않는다. 대신 따분해지기 쉬운 현실 어휘에 흥미성을 부각시킨다. 이런 어휘의 예로는 ‘임미다(임니다)’, ‘습미다(습니다)’, ‘답에바여(다음에 봐요)’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채팅 공간에만 존재하는 은어도 있다. 예컨대 20000이라는 숫자는 채팅 공간에서 ‘그럼 이만’의 의미로 쓰인다. 또 ‘즐팅’은 ‘즐거워 통신 하세요’라는 의미로, ‘번개’는 채팅 친구끼리의 현실적 만남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외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표정어휘이다. 이것은 대화자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표정 전달의 도구로 쓰인다. 즉, 대화자는 ^^, -, ^*, ^~, :-) 등과 같이 키보드로 입력되는 모든 문자를 동원해 표정을 전달한다.

80년대 중반 PC통신 채팅이 우리 사회에 처음 선보인 이래 채팅은 또 한명의 세종대왕을 낳았다. 기존의 언어 습관을 무시한채 오로지 채팅의 편리성을 위해 우리 고유의 말·글을 변형·재창조 해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말·글의 현대적 재창조라 하여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우리 말·글을 깎그리 무시하고 오염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송준우 기자〉

□ 인터뷰-유니텔 경희대 통신동호회 회원 조영석(문리대 수학3)

통신에서도 사랑을 베풀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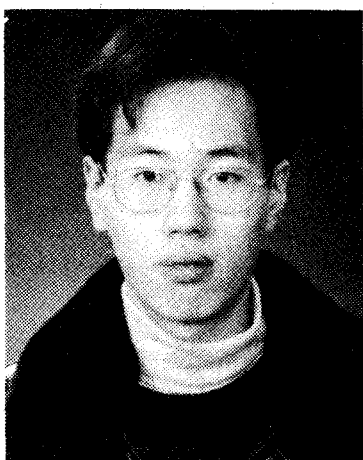
“하루라도 통신을 안하면 손가락에 가시가 돌아요!”

PC통신 유니텔 경희대통신동호회(경희동)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영석(문리대 수학3)군의 말이다. 작년 11월에 유니텔에 가입한 이후 꾸준한 활동을 지속하며 경희동 가꾸기에 앞장서는 조영석군은 통신에 깊이 빠져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경희동 활동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같은 학교라는 강한 소속감과 누구라도 편안하게 맞아주는 따스함 때문에 통신공간 상의 다른 어떤 동호회보다도 이곳에 더 깊은 애정을 느껴왔다는 것이다.

얼마전 일주일 정도 이곳에 접속을 못했더니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조영석 군의 경희동 자랑은 그칠 줄을 모른다. “이미 1천명이 넘는 가입자를 자랑하고 외부인에게도 아무 뜻없이 따뜻한 자리를 제공하죠. 졸업생 및 타학교 학생들도 종종 이곳을 들러 글을 올리는 등 열린 공간으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매주 수, 토요일 11시마다 통신 내 대화방에서의 정기적인 채팅과 매달마다 열리는 번개모임(OFF LINE 상에서의 직접적인 만남) 등도 이곳의 끈끈한 정에 한 몫을 한다. 통신 공간상에서 꾸준히 만나고, 틈나는 대로 직접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쌓인 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경희동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냐는 질문에는 “도움을 주고 받았을 때”라고 답했다.



통신 초보시절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친절하게 답변을 해줬던 사람들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서 다른이들에게도 그대로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생활에 대한 여러가지 도움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같은 학교 선배배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므로 레포트, 수강신청 등에 어려움이나 궁금증 등이 생기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조영석군은 무분별한 채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채팅은 통신에 재미를 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죠. 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에절을 무시한다거나, 들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함부로 거짓말을 하는 등의 마음가짐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또, 밤새도록 통신을 하다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등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컴퓨터에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있는 그가 최근에는 또다른 모임을 하나 만들었다. 바로 수학과 컴퓨터소모임 ‘첫걸음’이 그것이다. 열명정도의 학우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이 소모임은 이미 학술동아리로도 승인이 나고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준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단지 열명만으로는 하기 힘든 일임을 생각한다면, 또 한명의 숨은 실력꾼을 찾은 것이 아닌가 한다.

통신은 마약과도 같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한다. 그러나 조영석군처럼 통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 마약도 그리 나쁘지않은 약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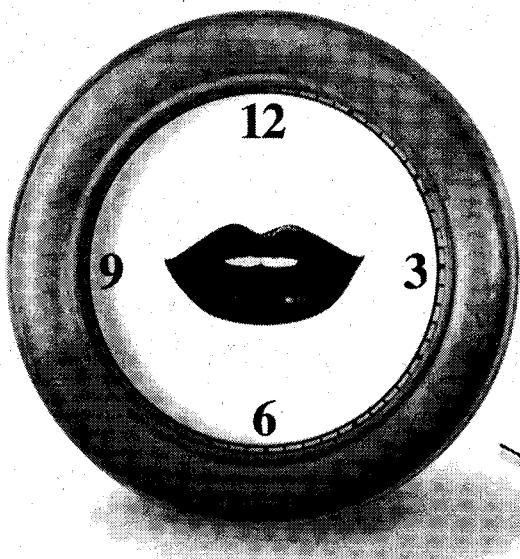
〈최용섭 기자〉

한국의 대표통신 - 천리안 (http://www.chollian.net)

▶ 이세요?

전국 11곳의 국내 최대 무료 교육통신 가입처에 보내드리는 천리안 멤버십 책(신세 이용설명서, CD-ROM 등)이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PC통신 방식으로 만들어 드리는 사실입니다.

채팅 FREE!



▶ 천리안 가을소식

- 10월 한달간 SCUG 신학기 개강에 맞춰
2. 논문의 게재, 천리안과 함께! 전 세계 1,000여 주요 대학의 200여 만명의 석·박사 학위논문(go uni), 각종 유수의 저널과 잡지 원문 복사, 채팅(go bbsc)
3. 무료! 천리안 해외Dial업 (082-02) 220-7272~4
3. 자료로급 납부자도 30시간 기본형 가입 및 전액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내 최대 94만 가입자 국내 최대 4,000여종 정보 국내 최대 25,000 회원 국내 최강 슈퍼인터넷

월 1만 5천원 정액으로 무제한 이용하는 고품격 인터넷 - 천리안 인터넷 PPP 서비스

알고 계시죠? 30시간 통신에 무제한 무료 채팅 -
천리안, 한 달 1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가쁜한 클릭! 주머니 가벼운 우리들의 통신
● 30시간 기본형 - 월 1만원 (인터넷 3시간 포함, 채팅무료) ● 10시간 기본형 - 월 6천원
신나는 클릭! 앞서가는 대학인의 필수 선택
● 가상대학 - 캠퍼스스터 ● 최신 유학/취업정보 ● 다양한 영화/스포츠 정보
● 국내 최대 동호회 ● 음성으로 하는 실시간 채팅 - TTS ● 3차원 환상게임 - 매직랜드

천리안 12주년 기념 고객 사은대잔치 (기간: 10.6 - 10.26)

- 행운 1 천리안 캐릭터 예쁜 이름 공모**
멋진 이름을 지어 천리안내 음모코스에 올려주시면 상사를 거쳐 팬티킴PC 등 깜짝 놀랄 상품을 드립니다.
- 행운 2 천리안 12주년 기념 고객 사은리츠**
리츠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승용차, 프린터 등 무궁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 행운 3 월드컴의 열기를 나도 함께!**
월드컴 본선 연속 4회 진출과 2002년 월드컴의 상품적 가치를 염두하여, 월드컴 리츠 무료자중 정답자 1,000명을 추첨, 고급 축구공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천리안 (GO EVENT) 또는 알간리안고객을 참조하세요.

한국의 대표통신 -
천리안

대리점 고객센터: 080-023-0220, (082+02)220-0220
천리안 고객센터: 080-99-01420, (082+02)709-3700

● 천리안 제휴번호: 전국 어디서나 01420, 37계 지역번호 01421 ● 가입신청: 상시 전화변환이나 전국 대리점 지정점에 전화로 즉시 가입 가능